관람객 순위에서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일본 미술계의 명암

The Art Newspaper

『The Art Newspaper』에서 조사한 2004년 세계 전시 관람객 순위를 보면, 하루 평균 7,638명이 관람한 도쿄국립박물관의 〈신성한 산의 보물(Treasures of a sacred mountain)〉전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곳에서 개최한 〈중국 예술의 보물(Treasures of Chinese art)〉전도 10위 안에 들었으며, 10년 동안 검토한 결과 일본에서 열린 전시 중 7개의 전시가 100위 안에 드는 성과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는 2001년부터 강행한 민영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장기적인 전시 계획, 전시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 미술관, 박물관들 사이에서 소수의 승자와 대부분의 패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사카에 있는 만노아트뮤지엄을 포함하여 폐관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몇 개의 다른 박물관도 현재 비슷한 운명에 처해있다.

한 여성에 의해 손상된 로이 리히텐쉬타인의 작품

BBC, september 5, 2005

오스트리아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즈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로이 리히텐쉬타인의 그림이 칼로 베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작품은 보험가만 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울 속의 누드(Nudes in Mirror)〉. 경찰은 독일 무니치에서 온 35세의 여성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네 번에 걸쳐 휘둘렀으며, 박물관 직원과 관람객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성의 가방 속에서 빨간색 스프레이와 드라이버도 발견되었으며, 중대한 재산상의 손상을 야기한 죄로 최고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은 약 30cm 가량 베였으며 이는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작품이 위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림을 베었다고 말했으나, 전시회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로이 리히텐쉬타인은 1997년 세상을 떠나기 전 1961년부터 1995년까지 41개 작품을 남겼으며, 앤디 워홀과 함께 미술에 대중문화를 접목시킨 1960년대 팝아트운동의 선구자이다.

영국정부의 새로운 법에 대한 예술계의 반발 커져

The Guardian, August 31, 2005

영국 정부가 발표한 종교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고 고무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법에 대해 예술계의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국문인조합은 법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로 다루기 위해 이미 오래전 해체된 검열반대위원회를 부활시켰다. 검열반대위원회 위원장인 리디아 라일린은 "이 법은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유망한 신진 작가, 코미디언, 그리고 극작가들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입법 예고된 법은 '법률적인 논쟁, 종교적인 활동, 표현의 자유 등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사상의 자유를 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구동독 국회의사당 건물 철거에 대한 항의 전시회

The New York Times, August 25, 2005

독일 문화부 장관 크리스티나 베스는 베를린 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구동독 국회의사당 건물을 헐고 파리 루브르에 견줄만한 프러시안 풍의 성을 지어, 5성 호텔과 대형 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에 철거해 2007년도에 공사할 예정이며, 총 비용은 6억 5천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약 7,000억에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련의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물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건물 내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144피트짜리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산' 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설치물은 회화, 무대 장치, 비디오 설치 작품, 건축 모형, 조각품들로 이루어져 거대한 산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객들은 철학자, 순례자, 산악인의 길로 명명된 3가지 경로 중에 선택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이들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도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잊기 위해 건물을 제거한다는 것이야말로 광적인 역사적 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전시가 독일 정부로부터 30만 5천 달러의 예술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관객 개발을 위한 무료 밤 공연

Backstage, August 18, 2005

미국의 씨어터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새로운 관객층 개발을 위해 미국 내 3개 도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연극은 살아 있다" 라는 프로그램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3개 도시의 극장들에서 일제히 무료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무료 공연은 해당 지역의 연극계와 시민들의 결집과 함께 별다른 비용 없이 매스컴의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TCG대표인 벤 카메론에 의해 필라델피아에서만 30개의 극장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향후 올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무료 공연의 날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세 도시는 각각 미국의 동부와 서부, 남부를 대표하는 곳으로 수준 높은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들이 포진해 있는 도시들이다.

폴 게티 재단의 구설수

LA Times, August 21, 2005

폴 게티 재단은 다양한 소장품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재단의 규모로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고상하면서도 특별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재단의 제왕적인 이사장과 충성스런 이사진들의 부도덕한 행적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사장 배리 뮤니츠(Barry Munitz)가 누려온 초호화판 특전은 재단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미국 전체 비영리 기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재단 소유 브랜우드 지역의 부동산을 뮤니츠 이사장의 절친한 친구인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에게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싼 가격에 팔아넘긴 것이다. 해외 휴가도 함께 갈 정도로 가까운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거래는 법적, 윤리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 검찰청은 이번 부동산 거래와 함께 뮤니츠의 월급과 보너스, 차입금 상환, 부인의 경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게티 측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특전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고, 이들 재단이 국민의 세금과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연주

Guardian, August 24, 2005

중동 분쟁의 중심지인 가자 지역 내 라말라에서는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웨스트 -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는 지난 해 지어진 800석 규모의 문화궁전을 다 채웠고 이에 더해 300여 명의 관객들은 복도와 극장 뒤에 서서 관람했으며, 이스라엘과 유럽 전역에 생중계되어 다시 한번 이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990년대 초반 결성한 교향악단은 매년 여름 40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과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조르단, 스페인 등에서 온 청소년들 함께 모여 연주를 통해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일각에서는 바렌보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청소년들이 교향악단에서 함께 생활하고 연주하는 기간 만큼은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며 개인의 정체성을 잊게 해준다고 한다. 교향악단의 다음 목표는 모든 정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이윤희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